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8 August_Vol.187





Cover story

인재=자산, 삼성KPMG!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사람은 자본이 없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나 사람 없는 자본은 아무 쓸모가 없다”며,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삼성KPMG의 자산은 3,000여 명의 쏘 구성원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 건강한 숲을 만들 듯,
삼성KPMG를 이끄는 힘은 인재 개개인의 능력에서 발휘됩니다.

삼성KPMG는 인원 제한 없는 ‘열린 채용’으로
2018 신입회계사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재들이 삼성KPMG와 함께 아름다운 숲을
이뤄가기를, 희망합니다.

Contents

August 2018 Vol.187 삼성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Issue Focus**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 06 **Team Story**
삼성KPMG 지방세 자문팀
- 08 **Client+**
두산인프라코어
- 10 **Market Reader**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AI알고리즘의 활용
- 12 **Expert's Advice**
국내 '패밀리오피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 15 **삼소해**
힘이 불끈! 삼성인이 추천하는 건강 보양식은?
- 16 **응답하라! 삼성인**
삼성KPMG의 첫 출근 날의 모습을 소환합니다!
- 18 **삼성인+가족**
신입 삼성인 & 부모님이 보내온 편지
- 20 **인재양성소**
삼성KPMG, 여성 리더 양성에 힘쓰다!
- 22 **KPMG Tour**
역사와 현대의 멋이 공존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 24 **Talk+Play+Love**
세계 3대 요리 터키 음식에 도전하다!
- 26 **Culture & Etiquette**
중세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나라, 폴란드의 문화와 에티켓
- 28 **KPMG Story**
물입을 이끄는 조직문화 만들어 가요~!
- 30 **Samjong News**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개최 외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최근 우리나라 제1, 제2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수출 업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삼정KPMG 국제 통상 전문가를 통해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미·중 무역분쟁의 시작

2017년 8월,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를 이유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미 통상법 301조 조사를 개시함으로써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됐다. 중국이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 이전을 강제하고, 신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해외 신기술 보유기업의 M&A를 촉진함으로써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2018년 3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4월 3일, 1,333개 품목, 총 5백억 불 상당의 수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즉각 대응하고, 다음날 미국산 106개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함으로써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5월 19일 관세부과 철회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무역분쟁이 끝나는 듯했으나 열흘 뒤 이를 반복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됐다. 7월 6일, 미국이 4월 발표한 중국산 1,333개 품목 중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개시하고, 중국 역시 같은 날부터 미국산 545개 품목에 대해 맞불을 놓으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중국은 7월 25~27일 사흘간 열린 10차 BRICS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기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2017년 미국의 GDP(19조4천억 불)와 유사한 규모(BRICS 18

TRADE WAR

조2천억 불)의 반트럼프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개방과 관세율 인하를 당근으로 제시하며 한국 등에 동 공동전선의 합류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전환을 우려해 지난해 말과 올해 5월, 수입규제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는 EU와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미·EU연합이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미국은 실리(무역역자 축소와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찾고, EU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 수출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나, 대부분 중국에서 최종 가공된 뒤 중국 내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역시 미국으로의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생산거점으로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생산기지를 베트남, 태국, 멕시코 등지로 다변화한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다. 중국의 미국향 물량이 제3국에 풀리는 풍선효과로 인해, 기존에 한국과 경쟁하지 않던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중 무역분쟁을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중국제조 2025'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이 맹추격을 받고 있거나 혹은 이미 추월당한 시점에서 미국의 이러한 제재 조치는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제품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한국산 제품의 경우 대미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의 한국산 반덤핑 제재 품목 중 90%가량이 중국산과 겹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선제조치로 한국을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우리 기업은 어떤 준비 필요할까?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 기업들과 협업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 대부분의 문의는 중국산 제품을 한국에 들여와서

단순가공 후 미국으로 판매하거나, HS Code를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변경해 수출해도 되냐는 것이다. 원산지 조작으로 미국에서 수입을 금지당함과 동시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밀수출죄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서 징역 혹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편법 대신, Value Chain 재편과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라는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중국의 기존 미국 시장 혹은 미국의 기존 중국 시장을 한국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Buyer들을 발 빠르게 공략해야 한다.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미·중 양국 간 관세 경쟁으로 높아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공략한다면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혹은 중국 내 유통채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거나 채널 확보에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중국 혹은 미국의 기존 영업력을 활용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만하다. 영업망을 공유 받는 대가로 커미션을 지급해 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미·중 통상분쟁의 소용돌이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중국산 원재료의 사용이나 가공공정상 중국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중 간 일반관세, 특혜관세, 증치세, 수출세, 원산지 판정 기준, 관세환급, 최종가공이 수행되는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Value Chain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 경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출제한조치나 반덤핑 및 우회덤핑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 이외에 우리 기업들이 기확보하고 있던 시장을 수성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상품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서비스·사용자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한국 제품의 시장 장악력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시도가 그중 하나일 수 있다.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온 우리 기업들이 이번 미·중 무역분쟁의 파고 역시 현명하게 넘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CONTACT US

국제통상본부 심충섭 전무 (본부장)

Tel. 02-2112-7622 / E-mail. cshim@kr.kpmg.com

박원 상무 Tel. 02-2112-0824 / E-mail. wpark@kr.kpmg.com

심종선 회계사 Tel. 010-8320-9339 / E-mail. jongseonshim@kr.kpmg.com



최고의 지방세 자문팀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와 열정으로 업지를 치켜 세운 지방세 자문팀! 팀을 이끄는 조원영 상무, 홍승모 상무, 박생표 고문, 이상태 전무, 조상현 상무.(앞줄 좌측부터)

‘지방세’ Solution의 모든 것! 삼성KPMG 지방세 자문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삼성KPMG는 지방세수의 점진적인 규모 확대 및 소득 중심으로의 과세 체계의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자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가장 먼저 법률관계의 정확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지난 1995년 단체장과 지방위원의 동시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부활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재원으로서 지방세는 더욱 중요해졌으며, 다양한 제도 변화가 등장하고 있다. 지방세의 핵심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특성상 현실적인 사업 및 그 법률관계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납세자 관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접근방식이나 생리 그리고 집행 관행 등을 정확히 분석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삼성KPMG ‘지방세 자문팀’은 30년간 서울시에서의 지방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박생표 고문의 자문을 받아 과세관청의 예상 논점과 접근방식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며, 고객사의 성공적인 결과 달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10여 년 이상의 세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지방세 자문을 직접 담당하고 있어, 조세법에 대한 깊이 나 확실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易地思地 자세로 고객과 호흡하는 지방세 자문팀

삼성KPMG ‘지방세 자문팀’은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 그리고, 부동산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방세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역지사지(易地思地, ‘고객의 입장에서 지방세를 연구하고 생각한다’는 의미)의 자세로 고객과 함께 호흡하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를 연구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삼성KPMG ‘지방세 자문팀’은 지방세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합법적인 절세자문 업무, 예규질의 대행 업무, 신고대행 업무,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대행 업무, 조사지원 업무 및 조세불복 업무 등을 주로

‘삼정KPMG 지방세 자문팀’ 주요 서비스

지방세 사전검토 업무

합법적인 지방세 절세자문 업무

예규질의 대행 업무

지방세 신고대행 업무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대행 업무

세무조사지원 업무

조세불복 업무

제공하고 있다. 과세대상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세의 위험 존재 여부와 그 수준을 가늠하여 주기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고객을 위해 합법적인 범위에서의 절세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쟁점 거래/행위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획득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Compliance)도 대행하고 있다.

더불어, 과다하게 납부한 세목에 대하여 경정청구행위를 통하여 환급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보다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지원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세된 지방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심사청구 등의 조세불복을 대행하는 업무 등 다양한 지방세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삼정KPMG ‘지방세 자문팀’은 경정청구대행 업무 및 조세불복에서 최근 탁월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고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선도적으로 지방세의 새로운 시장(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고객과 함께 지방세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

삼정KPMG의 지방세 자문팀은 원활한 정보 공유를 비롯해 정확한 의사결정 및 신속한 실행이 팀의 최대 강점이다. 이러한 강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 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TF는 10년 이상 세무 경력을 가진 10여 명이 모여 지방세 쟁점을 논의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Product를 현장에서 바로 도출해 내는 시스템이다.

또한, 삼정KPMG는 분기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방세 Newsletter를 발행하는 등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외적인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삼정KPMG ‘지방세 자문팀’은 고객과 함께 지방세 시장을 선도하고, 현재보다 2배 많은 지방세 전문가를 확보함으로써, ‘Vision 2020: The Clear Choice’를 달성하고자 한다.

‘지방세 자문팀’을 소개한다면?

“최근 고객들의 호응은 더욱 빨라지고 어느 면에선 불안정해 보입니다. 경쟁적인 기존의 구조 속에 경제환경의 불확실, 정치·사회적 위험 그리고, 미래 시장에 대한 불안 등의 영향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삼정KPMG는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며 고객들이 미래 성공 산업에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면서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정KPMG는 시대적 균형감을 가지고 고객 발전을 위한 지방세 시장(상품)을 연구(개발)하고 고객과 함께 호흡해 나아가겠습니다. 전문가의 요구가 높아지는 지방세 분야에서 삼정KPMG는 자문팀을 중심으로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와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전무이사 (팀 리더)

Tel. 02-2112-0950 / E-mail. seongtaelee@kr.kpmg.com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 및 자치입법권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삼정KPMG 지방세 자문팀은 고객의 지방세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 아래 취득세, 보유세에 대한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박세표 고문의 지도 하에 조세불복 분야에서 최고의 자문사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홍승모 상무이사

Tel. 02-2112-7674 / E-mail. seungmohong@kr.kpmg.com

“삼정KPMG 지방세 자문팀은 최상의 Service Quality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항상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상황에 적합한 Best Team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지방세 자문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상현 상무이사

Tel. 2112-7687 / E-mail. sanghyuncho@kr.kpmg.com

“삼정KPMG 지방세 자문팀은 세무 본부의 산업별 Business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과거 법인 내에서 국지적으로만 활용한 지방세 자문을 폭넓은 시야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니즈와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문성과 열정으로 하나된 팀 리더 및 팀원들이 있기에, ‘2018년 지방세 자문의 최대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삼정KPMG 지방세 자문팀이 고객이 신뢰하는 팀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신지훈 부장

Tel. 02-2112-3052 / E-mail. jeehoonshin@kr.kpmg.com



Global Leader in Infrastructure Solutions,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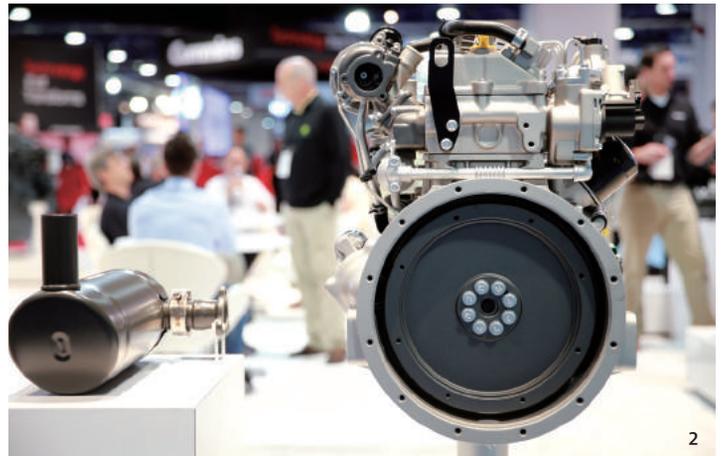
1937년 한국 최초의 대단위 기계공장인 '조선기계제작소'에서 출발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80여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건설기계, 엔진 등 참여한 모든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 위상을 구축한 한국 최고의 기계기업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프라 지원 사업 분야(ISB: Infrastructure Support Business)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비상하고 있다.

전 세계 인프라 건설의 중심

건설기계 사업부문은 1977년부터 우수한 품질의 굴삭기와 로더 등 소형에서부터 대형에 이르는 건설장비를 산업 현장에 공급하며 글로벌 인프라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두산(Doosan), 밥캣(Bobcat), 기스(Geith) 등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대형 장비에서 소형 건설장비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 건설기계 사업부문은 한국과 북미, 중국, 유럽 등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건설장비와 어태치먼트, 이동식 공기압축기, 조명 시스템, 발전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디젤 엔진 생산

엔진 사업부문은 1958년 한국 기업 최초로 디젤엔진을 생산한 이래,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버스·트럭용, 산업용, 발전기용, 선박용 디젤엔진과 가스엔진을 세계 각국에 공급하고 있다. 엔진 사업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각종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용도의 라인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엔진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의 신규 고객 및 신사업 발굴을 통한 미개척 시장 진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1. 두산인프라코어 중대형 건설기계 생산기지인 군산공장의 출하장
2. 세계 최대 건설기계 전시회 'CONEXPO'에 전시된 두산인프라코어 친환경 고효율 G2엔진
3.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두산인프라코어 글로벌 R&D센터의 야경



기계 제조업을 넘어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변화 준비가 한창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을 적용한, 보다 새롭고 스마트한 기계장비와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와 연계한 솔루션 제공을 확대하고 신기술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건설기계 시장의 최신 트렌드에 맞춰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 출시, 장비 유지보수에서부터 운영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DoosanCARE 강화, 부품사업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 굴삭기 공장 선진화를 통한 생산 효율 및 유연성 제고, G2 엔진공장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한 제조혁신 등을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독자기술로 개발한 DoosanCONNECT™ 서비스를 글로벌로 확대하고, 건설기계에 최신 ICT, 무인화/자동화 기술을 융합, 접목해 미래 건설현장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Concept-X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세대와 지역사회를 향한 지원

두산인프라코어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회사의 역량과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글로벌 사회공헌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가치 위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드림스쿨은 2012년부터 두산인프라코어가 지속해 온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들이 직접 멘토로 나서 참여 학생들을 지원한다. 핵심시장 가운데 하나인 중국에서도 낙후지역 청소년 학업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 프로젝트 '희망공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37개의 희망소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중국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밀착형 환경개선 사업과 주니어공학교실, 집수리 사업, 김장과 연탄 나누기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재원과 제품, 인력, 기술 등 보유한 자원을 기반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업의 역량을 활용한 지원' 세 가지 전략 방향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과 사회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가치를 두고 있다.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시알고리즘의 활용

| 시알고리즘, '다이내믹 프라이싱'·'추천 시스템' 등으로 활용 넓어져

AI(인공지능)알고리즘이 활용되는 영역 중 하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이다. 기업은 가격 민감도가 서로 다른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활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실제로 공유경제 기업을 대표하는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는 고도화된 가격 결정 알고리즘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매칭시키는 데 시알고리즘을 활용 중이다. 우버의 경우, 승차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언제 어디인지를 드라이버에게 사전에 알려주며 드라이버는 해당 지역에서 승객을 태우면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가령 공연이나 콘서트를 관람한 승객이 공연이 끝난 직후 공연장 앞에서 우버 탑승을 요청할 경우, 우버에 탑승하려는 승객들의 수요 대비 우버 드라이버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해 우버는 평소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시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알고리즘이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추천 시스템'이다. 시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은 소비자의 취향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으로 부상한 넷플릭스(Netflix)에서 대여되는 영화의 75%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금융 산업에도 시알고리즘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전통적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트레이딩에, 자연언어처리(NLP) 기술과 감성분석 등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서 금융 시장의 예측력이 향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 시 알고리즘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컴플라이언스 관리에도 시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있다.

시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향후 기업 실무자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알고리즘 담합 등 알고리즘의 사회경제적 역기능에도 예의주시해야

시알고리즘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경제에서는 생소했던 이슈와 역기능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장에서의 경쟁 강도를 약화시키는 '알고리즘 담합'을 꼽을 수 있다. 알고리즘 담합이란 경쟁 사업자들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격, 공급량 등을 조정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벌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최근 OECD와 각 국가의 업계, 정계, 학계에서는 알고리즘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알고리즘 담합에 대해 법무부가 조치를 취한 사례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순서화된 절차나 방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최근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적용되면서 AI알고리즘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인해 전통적인 경제에서는 생소했던 이슈 또한 제기되고 있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은 <Issue Monitor 84호>를 통해 AI알고리즘이 기업에서 활용되는 사례와 AI알고리즘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쟁점을 살펴봤다.

도 등장했다. 미국의 법무부는 2015년 온라인상에서 포스터를 판매하는 업체를 가격 담합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온라인에서 포스터를 판매하던 미국의 업체는 타 사업자들과 일부 영화 포스터의 가격을 고정하기로 합의하고, 병행 알고리즘의 형태로 가격 담합을 형성했다. 담합 과정에 참여한 기업들은 동일한 가격 조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인간의 개입 없이도 가격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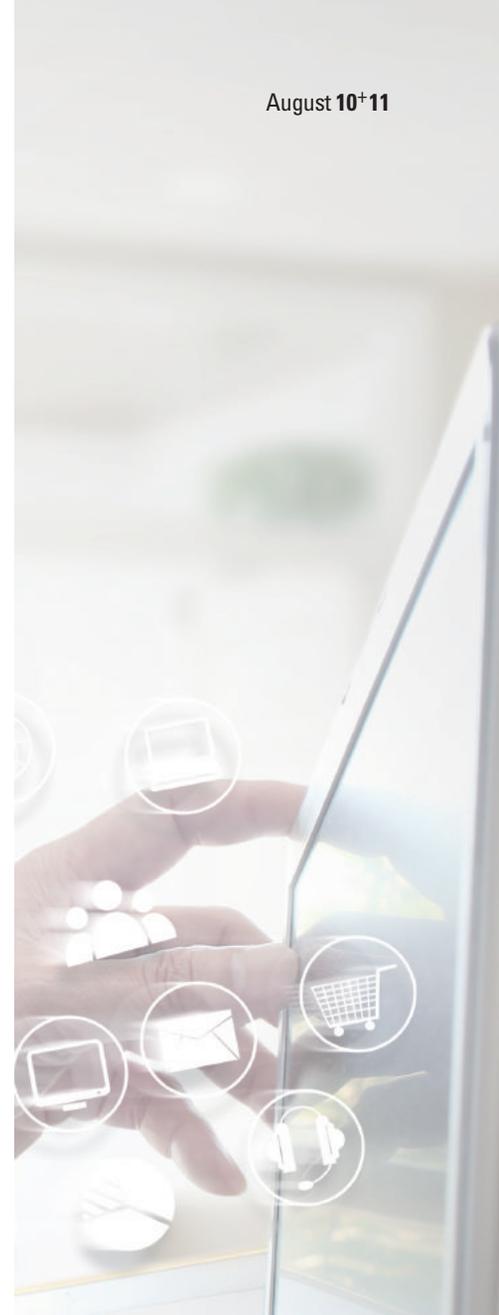
아울러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알고리즘 활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GDPR에는 알고리즘이 내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따라 잠재적으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AI알고리즘의 양면성을 고려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비 필요

디지털 특이점을 향해가는 오늘날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등 테크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알고리즘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알고리즘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AI알고리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제에 이어질 수 있는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과 같은 반시장적인 행위는 지양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AI알고리즘의 활용 방안	AI알고리즘 관련 이슈와 쟁점
<p>1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지불의사가 상이한 고객 개개인에게 실시간으로 가격 차별화</p>	<p>1 알고리즘 담합(Algorithm Collusion) 전통적인 경제에서는 생소했던 알고리즘이 담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슈</p>
<p>2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 고객의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며 마케팅 효과 극대화</p>	<p>2 EU의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 도입 알고리즘을 제한하거나 알고리즘에 대한 완전한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p>
<p>3 금융 업계에 확산되는 AI알고리즘 알고리즘 트레이딩, 로보어드바이저, 신용평가 시스템에 고도화된 AI알고리즘이 도입</p>	<p>3 알고리즘의 윤리성, 공정성, 편향성 이슈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에 인간의 개입에 따른 오류와 편향성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p>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 US

삼성KPMG 인공지능 서비스 리더
최성집 상무

Tel: 02-2112-3200

E-mail: seongjipchoi@kr.kpmg.com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기범 연구원

Tel: 02-2112-7430

E-mail: kkim28@kr.kpmg.com

국내 ‘패밀리오피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인간의 본능이자 특정 가문의 생존전략이기도 한 ‘상속’ 서양에서는 가문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패밀리오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패밀리오피스 시장의 성장 전망은 어떠할까? 전문가를 통해 국내 ‘패밀리오피스’ 시장을 분석해본다.



삼정KPMG Deal Advisory5본부장
김이동 전무

Q. ‘패밀리오피스’란 무엇인가요?

A. 패밀리오피스는 특정 가족 또는 가문의 부를 투자·운용하는 전문적 집단이나 회사를 일컫는 용어로,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1882년 ‘록펠러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한 이래 미국 유럽 등지에서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액자산가로부터 직접 고용된 투자·세무·회계 전문가들이 부자들의 재산 증식과 상속·증여를 돕는 형태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다수의 고객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상위 3,000개 패밀리오피스의 운용자산 규모가 약 1조2,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은 씨앤티(현 딜라이브)을 1조4,600억 원에 매각하고 에이티넬파트너스를 설립한 이민주 회장이 한국형 패밀리오피스의 1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Q. ‘패밀리오피스’ 시장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A. 패밀리오피스는 금융당국의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전통적인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망산업의 엔젤투자에서부터 해외 은행지분 인수에 이르기까지 제도권 금융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을 발굴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밀리오피스는 경영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도 흥미롭습니다. 어떤 패밀리오피스는 에너지·자원 등 수익률의 편차가 높은 투자 대상에 관심을 보인 바 있고 일부 고액자산가는 안정 추구형으로 자산유형(주식·채권·대체) 분산을 넘어 달러·유로화 등 통화의 분산까지 시키는 고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개척할 수 있고 경영자 성향에 맞는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Q. 향후 국내 ‘패밀리오피스’ 시장을 내다본다면?

A. 고액자산가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국내 패밀리오피스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의 경우 사모펀드들이 주도하고 있고, 이들 사모펀드는 기업의 ‘오너’에게 대규모 현금을 지급하고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기업을 매각한 오너는 큰 규모의 현금을 단순히 예금에만 넣어둘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 에이티넬과 같은 별도의 패밀리오피스뿐만 아니라 대형 증권사의 패밀리오피스(PB·Private Banking, 센터로도 불림)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패밀리오피스 간 연합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를 멀티패밀리오피스(Multi-family office)라 하는데, 한 가문의 자금 운용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다른 가문이 그 자금을 맡겨 함께 운용하는 형태로 국내에서는 대형 증권사의 패밀리오피스들이 유사한 구조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맛있는 경제>에서는 최근에 가장 핫(Hot)한 시사·경제 용어를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용어를 통해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뱅크사인 (BankSign)

'뱅크사인'은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은행권 이 곧 도입할 예정인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인증 서비스이다. 앞서, 은행연합회와 18개 회원은행은 새로운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뱅크사인'의 도입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특성인 참여자 간의 합의와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뱅크사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공인인증서(1년)보다 길어서, 인증서 갱신에서 발생하는 불편함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말 입법 예고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르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30-50클럽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이면서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이후 12년째 '2만 달러의 닻'에 빠져있지만, 올해는 3만 달러 달성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경제 기관들이 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3만2,000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측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이로써,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출처: 매일경제

월드컵 폐막 후

숫자로 살펴본 2018 러시아 월드컵

'아트 사커' 프랑스가 2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막을 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세계 축구팬을 놀라게 하는 이변과 명승부 속에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이번 월드컵 득점왕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해리 케인이 6골을 기록하며 이름을 올렸다.

숫자로 본 러시아 월드컵

- 29개** 페널티킥 횟수 
- 6골** 득점왕인 해리 케인(잉글랜드)의 골 수
- 69골** 세트피스 득점 (중전 기록: 1998년 프랑스 대회 62골)
- 3,800만 달러**  러시아 월드컵 우승팀 상금액
- 4장** 레드카드 수 (경기당 0.06개 골) 
- 1,000만 달러** 우승팀과 준우승팀 상금 차이
- 12골** 자책골 수 (중전 기록: 1996년 프랑스 대회 6골)
- 4억 달러**  32위(조별리그 출전)까지 총 상금

자료: 연합뉴스

행복한 일터

삼.소.해

응답하라! 삼정인

삼정인+가족

인재양성소

KPMG Tour

Talk+Play+Love

Culture & Etiquette

KPMG Story

Samjong News



삼정인, 소개해주세요!

힘이 불끈! 삼정인이 추천하는 건강 보양식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 삼정인을 위해 준비했다. 이번 <삼.소.해> 주제는 바로, 삼정인이 추천하는 나만의 특별한 보양식! 삼정인들이 추천하는 건강 보양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비타민이 가득한 퓨전 샤브샤브 '밀피유나베'

윤다혜 직원 (ADC)

어버이날 때 부모님을 위해 직접 요리한 '밀피유나베'를 추천한다. 밀피유나베는 프랑스어로 '천 개의 잎사귀'라는 뜻의 '밀피유'와 일본어의 '냄비'라는 뜻의 '나베'가 합쳐진 일종의 퓨전 샤브샤브 요리이다. 다양한 채소와 버섯이 들어가므로 비타민 A, D가 풍부해 무더운 여름 저하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음식이다.



기력 회복에 최고! '장어'와 '복분자'

이보은 직원 (인사팀)

추천하는 보양식은 장어구이와 복분자이다. 본가가 전라북도 고창이라 부모님 집에 가면 항상 장어구이와 복분자주를 꼭 먹고 올라온다. 현재 인사팀은 신입회계사 공채로 가장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딸의 건강을 위해 복분자즙을 택배로 한 박스를 보내주셨다. 삼정인들도 무더운 여름, 장어와 복분자로 힘내기를 응원해본다.

'돼지 갈비찜'이면 밥 한 그릇 푹딱!

남של범 S.Senior (IM4)

가장 좋아하는 보양식이 '돼지 갈비찜'이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먹으면 기운이 나는 음식이다. 돼지 갈비찜은 동맥경화, 고혈압, 빈혈 예방 및 피로회복 등에 좋다고 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따뜻한 밥에 함께 먹으면 더위도 잘 이겨낼 것 같다.



간편하지만 영양만점인 '새우단호박찜'

서다은 Associate (IM1)

무더운 여름날! 간편하지만 아주 근사한 한 끼를 소개한다. 행복감을 높여주고 불면증을 해소시켜주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많은 새우와 파프리카를 매운 양념장에 하루 재워 둔다. 그 다음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찜 단호박에 담아 먹으면 아주 근사한 '새우단호박찜'이 완성된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추천해본다.

채용 특집 I

삼정KPMG의 첫 출근 날의 모습을 소환합니다!

‘응답하라! 삼정인의 신입 시절!’ 채용특집으로 이번 호에서는 삼정인의 신입 시절 모습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출근의 설렘과 열정 가득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보려 한다. 아마도 예비 삼정인들에게는 삼정인의 모습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지금부터 삼정인이 떠올린 신입 시절의 모습을 만나러 간다.

출근길이 설렘 그 때 그 시절!

최재혁 상무 (B&F3)

입사한 지 어느덧 15년이 흘렀네요. 입사 당시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저를 택해 준 법인에 고마움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의도치 않게 선배님들을 귀찮게 하기도 했어요. 하하.

그때 제 모습은 ‘어리바리’, ‘열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담당한 업무 관련 기준서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 읽고, 용감하게 회사 담당자와 부딪혔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은 것은 퇴사를 앞둔 인차지께서 복잡한 숫자를 맞춰 보다가 결국 포기한 것을, 제가 스스로 나서 밤새도록 과거 5년치 숫자를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서 정확하게 맞췄던 적이 있어요. 힘들었지만, 그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네요.

지금 돌아보니, 입사 초의 열정과 즐거움을 잊고 지낸 것 같아요. 그때는 동료들과 즐겁게 업무도 하고, 놀기도 했죠. 매일 출근길이 설렘이었어요. 현재 동료들과도 이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네요. 하지만, 워라밸만큼이나 전문가로서 한 번쯤 업무에 열정을 갖고 뛰어드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처음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을 예비 삼정인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예비 삼정인 여러분, 그리고 삼정인 모두 파이팅입니다!



2006년 팀 워크숍에서 V(브이)

되돌아보니 가장 행복했던 날들

천성협 S.Manager (B&F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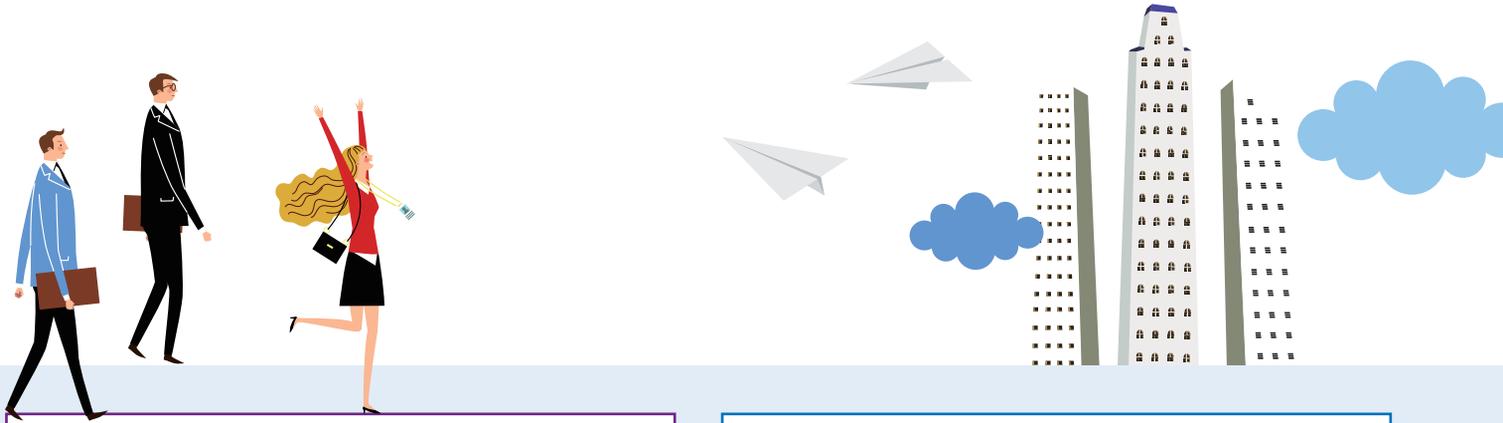
저는 2007년 공채로 입사해 어느덧 11년 차 삼정인입니다. 신입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처음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인차지 회계사님께 들은 말이 기억나요.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잘해라”, 아마도 거의 모든 회계사 분들께서 한번쯤 들어봤을 말일 듯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비로소 학생에서 벗어나,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왔음을 실감했어요.

돌아보면 신입 시절 모든 순간순간이 다 소중한거예요. 입사 동기들과 오랜 기간 연수받은 것, 처음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어리바리 했던 것 등 모든 것이 추억이죠.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당시를 떠올리는 미소 짓게 되네요. 분명 좋은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좋은 기억이 되어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에 위안도 되네요. 예비 삼정인 분들도 입사하게 되면, 삼정KPMG에서 힘든 점도 있을 테고,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든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좋은 점을 얻어 갈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삼정KPMG에서 그래왔듯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점을 배우며, 성장할 계획입니다!



열정 가득했던 입사 초 모습



**당시의 감정을 설명하는 두 단어!
'두려움'과 '자신감'**

정혜원 Manager (Global Tax)

저는 2011년 9월 신입연수를 다녀와 2012년 1월에 입사한 7년 차 회계사예요. 입사 당시를 떠올리면 '두려움'과 '자신감'이 떠올라요.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당시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입사를 한 시기라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 차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물론 막상 입사를 하니 현실은 생각과는 달랐지만요. 사실, 사회 초년생 당시 저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명언을 새기고, 하고 싶은 업무나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활했다면, 법인에서 더 얻어가는 것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남아요. 때문에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게 될 예비 삼정인들에게 '기회의 땅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사해서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인의 성장과 함께 자신도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는 법인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으셔서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도 세무본부에서 더 다양한 업무 경험과 배움을 통해 고객에게는 신뢰받는 전문가로 후배 회계사들에게는 존경받는 선배로 성장하고 싶어요.



상하이로 신입 연수를 떠났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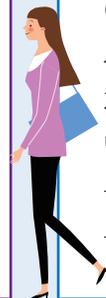
**'동기'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즐거운 시절!**

박지선 Senior (IGH)

저는 2015년 9월에 입사했으니, 어느덧 입사한 지 3년 정도 되었네요. 3년 전 모습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동기'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지금까지 겪은 시즌 중에서 1년 차 때가 가장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재미있었다고 생각되는 것도 수많은 동기들과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가장 즐겁게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시기가 1~2년 차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동기들도 많고, 대부분은 처음 다니는 회사라서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예비 삼정인 분들이 이 글을 본다면, 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입 시절에 동기들과 자주 놀러도 가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봉사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풍족한 회사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을 때보다 삼정 KPMG에 입사 합격 통보를 받고 더 기뻐던 기억이 나요. 입사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회계나 감사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업무가 주어질 때마다 늘 새로운 이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이제 곧 예비 삼정인 분들이 입사하면 후배가 더 많아질 텐데 저도 이제 선배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제 앞에 놓인 일들을 큰 문제 없이 해결하며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싶어요.



무의도 신입 연수 때의 추억



채용 특집 II

신입 삼정인 & 부모님이 보내온 편지

“부모님 감사해요~!” & “우리 아들, 딸! 언제나 응원할게”

이종광 Associate (Domestic Tax2본부)

“어머니처럼 지혜롭게,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Dear. 부모님께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쓰일 글이 왜인지 부모님께서는 이리도 어렵습니다. 여러 번 고쳐 쓰는 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편지 한 통 미루던 저를 반성하며, 사랑과 감사를 담아 몇 글자 남겨봅니다. 멀리 고향에서 서울까지 유학(?)을 와 사회의 첫걸음도 이곳에서 걷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사회인이 된 지금, 이 모든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이뤄졌음을 깨닫습니다. 가끔은 경쟁사회 속에 자칫 매몰되어 저 자신을 잃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그저 제 행복만을 바라시는 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덕분에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은 걱정을 덜어놓으셔요. 다만, 살아감에 있어서 저에게는 아직 어려운 것들,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그래 오셨듯,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걸음마를 떼고 있는 지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서툰 제 모습에 낙담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누님과 형님이 만든 우리 가훈처럼,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어머니처럼 지혜롭게,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From. 사랑하는 아들 올림



“자랑스럽고 대견한 아들, 벅찬 마음으로 축하한다!”

Dear.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귀를 잘 알아듣고 뭐든지 혼자서도 척척 해내며 반듯하게 자라주던 네가, 이제는 큰 꿈을 안고 도전했던 목표를 이루고 또 원했던 회사에 입사했다니 엄마로서 더없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구나, 벅찬 마음으로 축하를 보낸다.

오늘은 직접 마주하지 않고 엄마 혼자서 너와 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는구나, 이 시간도 매우 행복한 시간임을 새삼 느끼며 몇 자 적어본다.

지금까지 혼자서 책과 씨름해 왔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넓은 세상에서 어쩌면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매사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늘 그래왔듯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무엇보다,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는 너의 모습을 살아있는 동안 보고 싶을 뿐이다. 많이 들어 본 말이겠지만 또 한 번 마음에 새기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From. 언제나 사랑하는 엄마가



삼정KPMG는 6월 25일 공인회계사 기합격자를 대상으로 입사채용을 진행했다. 이번에 입사한 신입 삼정인이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왔다. 또, 신입 삼정인의 부모님 역시 자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의 감동의 편지를 함께 읽어보며 신입 회계사의 출발을 응원해보자.



이다영 Analyst (Deal Advisory1본부)



“부모님의 땀과 눈물을 깨달아요~! 감사합니다!”

Dear. 어머님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창이던 장마는 어느덧 끝나고 나날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엄마께서 저를 낳으셨던 1994년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었던 한 해였다고 하지요. 제가 지금의 출발선에 서기 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간 누려온 것들이 부모님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성취들도 제 힘으로만 이뤄온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애정,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도 새삼 알아갑니다. '시작'이라는 말보다 더 설레는 말이 또 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시작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작이 있겠지만 이번 시작은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엄마께서는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서도 저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도록 하셨지요. 앞으로도 삶의 순간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From. 엄마의 사랑이자 자랑이 되고 싶은, 딸 다영이가

“우리 딸이 있어 언제나 엄마 마음은 꽃밭이야!”



Dear. 다영이에게

너만큼이나 큰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만큼 자라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다고 하니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되는구나. 네가 태어난 다음 해에 동생이 태어나 아무래도 동생에게 더 손이 많이 갔고, 관심과 애정이 충분하지 않아 어린 네가 상실감을 느꼈을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짝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도리어 너는 연년생으로 동생이 있어 친구 같다고, 참 고맙다고 했었지.

여태껏 바르게 잘 자라 준 것도 고마운 일인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 나가는 것을 보니 대견하고 또 고맙다. 엄마는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만 산다고 꼭 잘 사는 삶은 아닌 것 같더구나. 우리 딸은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껏 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네.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아팠지만 지나고 보니 그만큼 어른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 사실 나이만 어른이지 마음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잘 지내 왔듯이 엄마는 네가 앞으로의 삶도 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어. 바람이 있다면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기 마련인데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엄마는 우리 딸이 있어 언제나 마음이 꽃밭이야. 고맙고 또 고맙다.

From. 너의 사회 첫발을 응원하며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FY18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삼성KPMG, 여성 리더 양성에 힘쓰다!

삼성KPMG는 'FY18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인재양성소>에서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현장을 살펴보고,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소감도 들어봤다.



삼성KPMG는 여성 임직원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FY18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Manager, S.Manager, Director 직급을 대상으로 본 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 25명이 1기에 참여했다. 삼성KPMG 여성 리더들은 리더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리더십 실행 방법 및 전략 수립 등에 대해 배웠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7월 19일에는 삼성KPMG COO 한은섭 부대표가 여성 리더들에게 교육 수료증을 건네며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했다. 한편, 삼성KPMG는 출산, 육아를 위해 유연·단축 근무를 시행 중이며, 사내 여성 임직원 모임 'KNOW(KPMG Network Of Women)'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16년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주관)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생생후기'!

- ①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 한마디!
- ② 앞으로의 계획은?



김은실 Director (ICEI)

나만의 리더십 유형을 찾고, 실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시간!



- ①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이름답게, 리더십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제 리더십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목표하는 리더십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1기로 여성 리더십 교육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하고, 리더십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삼성인이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지속,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어요.
- ② 나만의 리더십 브랜드를 포지셔닝하고, 브랜딩하고 싶어요. 여성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고객 및 산업에 대해 깊이 이해함으로써, 삼성KPMG의 풍부한 Knowledge Infra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고객과 후배들에게 전파하여 2년 후에는 삼성KPMG의 New IFRS 산업 전문가의 대표주자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싶어요.



신지원 Director (TP)

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법인 내 여성 리더들과 소통하면서 기존에 혼자서 고민하던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어요. 나와 유사한 직급 및 상황의 여성들은 어떤 고민과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도움을 줄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요. 1기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훌륭한 네트워킹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② 사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별을 구분하기보다는 법인 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직급의 모든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리더의 역할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하는지는 아직도 법인 내 많은 리더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이러한 고민들을 동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졌으면 좋겠고 저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들을 팀, 본부, 법인 내에서 '실행에 옮기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게요.

① 이번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이 저한테 매우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리더십 스타일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동안 뚜렷한 목표 없이 회사를 다녔는데 리더십 브랜드 수립 세션을 통해 앞으로 삼성KPMG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생겨서 직장 생활을 보다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내게 될 것 같아요.

② 모든 수업이 알차고 유익했지만, 마지막 세션에서 강사님과의 1:1 코칭을 통해 앞으로 제가 만들어 가야 할 저만의 리더십 브랜드 구축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Action Plan을 수립할 수 있어서 더욱 더 의미 있었어요. 리더십 브랜드는 앞으로 조직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나침반과 같아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하나씩 실행에 옮겨 나가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제게 좋은 기회를 주신 박용수 본부장님, Gender Diversity를 위해 고민하시고 애써주시는 서지희 전무님께 감사 드립니다!



황은숙 S.Manager (RC)

① '내가 과연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제가 '나는 어떤 리더가 될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특히, 긍정적인 변화는 교육 시간을 통해 나에게 잘 맞는 리더십을 찾고, 이를 위해 선정한 몇 가지 핵심 활동을 실제로 실행하게 됐다는 점이에요. 또한, 기억에 남은 프로그램 중 하나는 남산 문학의 집에서 '마음챙김(Mindfulness) 명상'을 배운 거예요. 회사업무, 육아, 살림에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는 저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공감해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②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1기 과정 수료자로서, 여성 후배님들이 법인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되고 싶고 법인 차원에서도 향후 많은 Manager 이상 여성 삼정인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법인과 서지희 전무님, 저를 추천 해주신 임근구 전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성아 Manager (IG)

TP본부 이현수 Senior 역사와 현대의 멋이 공존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열정의 나라, 스페인. 특히,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바르셀로나(Barcelona)는 역사와 현대의 멋이 공존하는 곳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TP본부 이현수 Senior는 지난해 신혼여행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다녀왔다. 그가 전하는 바르셀로나 매력에 빠져본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스페인 바르셀로나 3박 4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바르셀로나 시티버스타어(에스파냐 광장, 몬주익 올림픽 스타디움 등) → 콜럼버스 동상 → 바르셀로네타 해변 → 몬주익 분수쇼(세계 3대 분수쇼)
- 둘째 날** 카탈루냐 광장 → 고딱 지구 스냅 촬영(포트벨·산타마리아 델 마르 성당·왕의 광장·산 하우메 광장·바르셀로나 대성당·카탈루냐 음악당) → 람블라스 거리 → 보게리아 시장(먹방) → 카탈루냐 광장 → 바르셀로나 벵커(바르셀로나 야경 감상)
- 셋째 날** 가우디 투어(까사비센스·구엘공원·레알광장·구엘저택·까사바뜨요·까사밀라·성가족성당) → 캄프 누 스타디움(2017-2018 유럽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 VS 유벤투스 경기 관람)
- 넷째 날** 쇼핑 및 휴식 → 스페인 공항

지난해 9월, 인생의 반려자가 된 그녀와 신혼여행으로 스페인을 다녀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도시이자 세계적인 클럽 FC 바르셀로나의 연고지로도 유명한 스페인 축구의 성지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피카소와 가우디를 배출한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가우디의 작품을 따라 도시를 여행하는 가우디 투어는 전 세계 여행객들의 버킷리스트에 들 정도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유명 건축물과 다양한 먹거리가 즐비한 바르셀로나를 유럽 여행지로 어디를 가면 좋을지 고민하는 삼정KPMG 가족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Best3

① 가우디 투어의 하이라이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 성당(La Sagrada Familia)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성당으로 1882년

착공했으나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가우디 사후 100 주년이 되는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 투어의 맨 마지막 장소이자 하이라이트로 건축물 곳곳에는 성경 속 이야기와 인물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실제 시신을 본떠서 건축물 곳곳의 인물들을 표현했다고 한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투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로 성당의 역사와 가우디의 디자인 철학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관람하면 그 재미가 배가되는 만큼 꼭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관람하길 추천한다. 참고로 가장 멋진 성당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은 성당 앞 공원 옆 못 건너편이다.

② FC 바르셀로나의 홈구장, '캄프 누 스타디움'

캄프 누 스타디움(Estadio Camp Nou)은 유럽에서 가장 큰 축구 경기장이자 FC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으로, 그 유명한 리오넬 메시



구엘공원



보게리아 시장

가 뛰고 있는 팀이다.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을 제외하면 스타디움 체험 투어를 할 수 있는데 투어 프로그램에는 박물관 관람, 9만 9천 좌석의 캄프 누 스타디움 투어, 선수단 드레스룸 및 기자회견장 투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캄프 누 스타디움에는 다양한 응원도구와 유니폼, 액세서리, 포토존이 있는 엄청난 규모의 캄프 누 쇼핑몰도 있고 주변에 다양한 스낵 바와 테라스가 있는 만큼 축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방문하면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을 듯하다. 참고로 캄프 누 스타디움은 1월 1일, 12월 25일, 경기가 있는 날은 휴무이며 월요일~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입장할 수 있다.

③ 없는 게 없는 별천지, '보게리아 시장'

바르셀로나 중심지에 있는 보게리아 시장(Mercat de la Boqueria)은 신선한 채소, 과일, 수산물, 그리고 하몽 등 없는 게 없는 별천지이다. 특히 과일은 먹기 좋게 한 팩 사이즈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맛있는 먹거리가 사방에 있어 쉬지 않고 지갑을 열게 만든다.

또한 1유로짜리 생과일 주스는 여행의 피로를 싹 가시게 할 만큼 맛있었다. 방문하게 된다면 주스 한잔 하면서 시장을 천천히 구경하는 것을 추천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다.

스페인 전통 요리 '츄러스'

스페인 하면 츄러스, 츄러스 하면 바르셀로나! 특히, 고딱 지구에 있는 Xurreria를 추천한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해서인지, 가게 내부엔 한글로 영업시간이 적힌 인쇄물이 붙어 있다. 주문하면 바로 구워줘서 더 맛있고 진한 초콜릿 소스에 꼭 찍어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된다. 참고로 Xurreria는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하니 방문 전 꼭 현금을 지참하기를! 혹시 방문하게 될 분들을 위해 주소도 남겨본다. 구글맵으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다.

주소: Carrer dels Banys Nous, 8, 08002 Barcelona, Spain

스페인 여행 꿀 TIP

1. 바르셀로나 공항은 반드시 세시간 이전에 도착하기
공항이 생각보다 크고 한국처럼 최첨단 출입국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속도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느리므로 여유를 가지고 공항에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대한항공은 바르셀로나 공항 제2터미널에 위치해 있다.

2. 한국인에게 덜 알려진 명소 바르셀로나 벵커
바르셀로나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숨은 명소 바르셀로나 벵커를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전망대에 오르면 성가족 성당 등 주요 관광지부터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오는데 특히 해질녘에 전망대에 올라 석양과 함께 바르셀로나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면 좋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어둡기에 해지기 전에 올라가거나, 이미 해가 진 이후 전망대에 올라간다면 안전을 위해 최소 2명 이상 동행하는 것 좋다.



캄프 누 스타디움

터키 요리 배우기

세계 3대 요리 터키 음식에 도전하다!

프랑스, 중국, 터키는 다양한 음식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세계 3대 요리 국가이다. 이 나라 중 터키의 요리를 'Talk+Play+Love'를 통해 이종균 Associate가 입사 동기들과 함께 체험하고 돌아왔다. 이들이 만든 터키 요리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좌측부터 이승훈, 박민상, 이종균, 차영준 Associate

든든한 동기 형들과 아주 특별한 하루를!

안녕하세요! ICE1본부에서 근무하는 1년 차 회계사 이종균이에요. 이번 'Talk+Play+love'에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ICE1본부 동기 형들과 참여하게 되었어요. 잠시 동기 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동기 사이에서 항상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표현은 거칠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미워할 수 없는 이승훈 회계사, 입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본부 내 같은 팀에서 동고동락하며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박민상 회계사, 그리고 동기들을 위해 항상 굿을 일을 마다치 않는 든직한 살림꾼 차영준 회계사, 이렇게 제겐 든든한 세 명의 동기 형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지난해 입사한 1년 차 회계사로서, 한 본부에 속했지만 서로 필드가 달라 생사 파악이 힘들었어요. 서로 자주 보지 못해 애త함만 쌓여갔죠. 그러던 중 시즌이 모두 마무리되고 여유가 생겨 이 시간

을 활용해 추억도 쌓고, 재미있는 경험도 해볼 겸 'Talk+Play+love'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 넷 모두 요리를 배워본 적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로 쿂� 클래스에 도전하게 됐어요. 어떤 요리를 배워볼까 하다, 조금 더 특별하고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 해서, 세계 3대 요리라 불리는 터키 음식을 배우러 갔어요.

다양한 터키 요리! 맛도 최고!

우리는 회사 근처에 있는 터키 이스탄불문화원에서 쿂�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회사 근처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항상 오며 가며 지나쳤기에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어요. 이스탄불문화원에서는 쿂� 클래스뿐 아니라 터키전통문양을 이용한 수공예 클래스, 터키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쿂� 클래스를 선택한 우리들은 메인 요리부터 터키반찬, 터키수프, 터키디



저트 등 처음 보는 음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어요. 사실, 클래스에 참여하기 전에 터키 음식 중에는 케밥(kebab)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 “그냥 케밥 만들고 오는 건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클래스가 진행되는 동안 터키음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케밥밖에 몰랐던 저희가 부끄러웠어요. 실제로 터키 음식은 동서양 문화가 접하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중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3대 요리로 불릴 만큼 다양성과 맛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총 4가지 종류의 음식을 만들었어요. 요거트를 넣은 스프인 ‘야일라 초르바스’, 소고기를 활용한 메인 요리 ‘베사멜 소스 엘바산 타바’, 터키의 국민 반찬 ‘시르켈리 크르므즈 비베르’, 초코맛 디저트 ‘이맘샤르’예요. 이름이 다소 생소하더라도 사용하는 재료나 조리 방법이 한식과 비슷해 입맛에도 잘 맞았어요. 음식을 만드는 중에 터키 선생님들께 터키의 식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음식을 만들며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요리의 맛을 좌우하는 소스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특별한 재료 없이 버터와 우유, 물, 각종 향신료만으로도 굉장히 이국적이고 색다른 소스를 만들어 낼 수 있었어요. 집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왤치 모를 자신감도 샘 솟았죠. 하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음식을 다 만든 다음에는 저희가 만든 음식을 한데 둘러앉아 시식했어요. 다 만들고 나니 화려하진 않지만 단출하고 정감 있는 터키 한상이 차려졌어요. 정말 맛있었고요, 직접 외국 음식을 만들어 보았다는

새로움에 기뻐어요. 다들 처음 접해보는 음식에 대한 이질감도 없이 한 그릇 똑딱하고 남은 음식은 포장까지 했어요.

모두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클래스가 진행이 되어 ‘쿠킹’클래스인지 ‘토크’클래스인지 분간이 어려웠다고 했어요. 우리 회사 근처에 이렇게 분석 같은 곳이 숨어있었다는 것에 신기하고 참여 기회 주신 회사에 더욱 감사한 하루였어요.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시간은 신입 회계사로서 잘한 부분보다,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느껴요. 이번에 동기 형들과 함께 쌓은 즐거운 추억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사이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기들과 지금까지 함께 많은 추억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파이팅이에요!

터키 이스탄불문화원

학술 교류활동, 문화 역사 강좌, 전시회와 축제, 한국과 터키 양국 답사 프로그램, 에세이 공모전, 양국의 주요 기념일 축하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과 터키,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민간문화원으로서 1998년도에 설립됐다. 또한, 터키어 및 요리강좌, 커피교실, 문화역사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56 리틀스타빌딩 2층, 3층
- 문의: 02-3452-8182



중세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나라, 폴란드의 문화와 에티켓

여행자들에게 새롭게 주목받는 나라, 폴란드. 동유럽 경유지로 많이 찾는 나라이지만, 역사적 가치와 뛰어난 명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수도인 바르샤바는 세계적인 음악가 쇼팽의 고향으로 세련된 느낌을 풍기는 것은 물론 과거의 모습도 간직한 아름다운 곳이다. 폴란드란 나라에 대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폴란드 Korea Desk의 조용균 S.Manager가 폴란드에 대한 문화와 에티켓을 소개한다.



| 낮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폴란드의 겨울 풍경

폴란드의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탓인지 바르샤바의 겨울이 서울의 겨울보다 항상 추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폴란드의 겨울을 좀 더 힘들게 느끼는 것은 높은 습도로 인해 뻗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추위, 그리고 한겨울에는 3~4시면 해가 저서 5시쯤 되면 이미 한밤중 같이 느껴지는 기분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건조한 한국 추위와는 다른 느낌의 습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이곳에서는 모자를 많이 쓰는데, 겨울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고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는 모자를 두세 개 겹쳐 쓰기도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정장을 입고 출근하면서 모자를 쓰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모자 없이 두꺼운 코트만 입고 나가면, 친해진 동료들이 마치 한국 사람들끼리 문듯이 “모자는 왜 안 썼어요? 감기 걸리겠네”라고 걱정 어린 말을 해서 한국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정서에 놀라곤 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두껍게 걸쳐 입고 나가다 보니 식당이나 극장 같은 공공장소의 코트룸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집에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간 경우에도 집주인이 문에서 환영하면서 바로 코트를 받아가서 별도 공간에서 보관하다가 배웅할때 다시 갖다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바르샤바에 도착한 것이 1월이었는데 코트를 맡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던 저로서는 처음에는 코트를 넘겨주지 않고 한국에서 하듯 제 옆 좌석에 걸쳐 놓고는 했는데 나중에 폴란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 어떨 때는 그것이 매너없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보드카에 대한 자부심으로! 다양한 음료를 즐기는 문화

폴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음료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보드카가 러시아가 아니라 폴란드가 원산지라면서 보드카에 대한



이것만은 꼭! 폴란드 Etiquette Plus+

1 폴란드인은 꽃을 좋아하므로 초대를 받은 경우 꽃을 선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짝수개의 꽃은 애도의 의미이므로 짝수로 선물하는 것은 금기이다.

2 대체적으로 폴란드인은 느긋한 성격이기 때문에 회신이 빨리 오지 않는 편이지만 계속해서 전화 등으로 재촉하는 것은 좋지 않다. 비록 약속을 잡는 과정은 느리게 진행될 수 있으나 폴란드 사람들은 대부분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오기 때문에 약속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부심도 강하고, 많은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는 계절에 맞추어 그곳만의 레시피로 특별 음료를 준비합니다. 겨울이 되면 홈메이드 Zimowa herbata(우리말로는 겨울차)를 혹은 각종 grzane wino(프랑스의 뱅쇼와 비슷한 향신료를 넣고 끓여낸 술)를 담가 팔고 여름에는 다양한 향의 과일에이드 스타일을 음료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음료를 많이 마시다 보니 정식 식사일 경우는 대부분 음료부터 주문하고, 나온 음료를 마시면서 나머지 본 식사를 주문하거나 주문한 음식을 기다립니다. 꼭 레스토랑이 아니라 손님을 집으로 식사 초대했을 경우에도 다양한 음료와 차를 구비해 놓고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다가 천천히 식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음료 주문부터 받는 것을 일종의 상술로 느껴지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부담스러웠는데, 이 곳에서는 손님에게 먼저 마실 것을 내주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다는 점을 이해하고 편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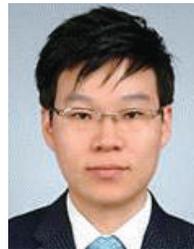
한국인은 “빨리빨리”, 폴란드인은 “콤비노바치”

한국인의 업무방식의 한 단면을 “빨리빨리”로 설명할 수 있듯이 폴란드인들이 자국민의 일 처리 방식을 평가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용하는 폴란드 단어는 “콤비노바치 (kombinowa?)”입니다. 이 단어는 폴란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지만 외국인들에게 설명해 주기는 몹시 어려워하는 복합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곳의 방식을 뜻하는데, 그것이 비록 정식 절차에 따른 해결 방법이지도 않고 결과가 100%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전에 들은 사례로, 주재원 거주증 기한 만료가 다가와서 회사에 거주증 연장을 계속 요청했지만 일정이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 기한이 만료되자, 해당 직원을 EU 이외 국가에 나갔다가 무비자로 다시 입국



1. 2차 세계대전 당시 완전히 폐허가 된 구시가지지를 완벽하게 옛 모습대로 복원한 현재 바르샤바
2. 한국 기업이 많은 브로츠와프의 구시가지에서 촬영한 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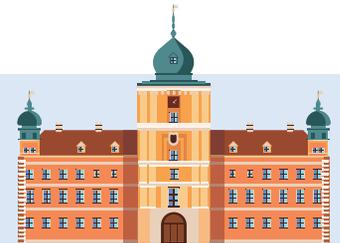
하게 하고 거주증 기한 만료 이후의 월급을 기한 만료 전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해들을 당시에는 단지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웃고 넘겼는데 콤비노바치라는 단어를 알고 나서는 아마 대표적인 콤비노바치 사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업무 스타일 때문인지 폴란드에서는 일이 순차적 또는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지 않거나 마감 시한이 다가 오는 경우에도 느긋한 태도를 자주 보게되는데, 한국의 업무 문화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계획 단계부터 여유 있는 스케줄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CONTACT US

폴란드 KOREA DESK 조용균 S.MANAGER
Tel. +48225281186 E-mail. ykcho@kpmg.pl

Global Etiquette



3 폴란드에서 남성들은 만나면 악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이지만, 남녀가 만났을 경우 여자 측에서 악수를 건넨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의이다. 남자가 먼저 악수를 청하면 여자에게는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첫 만남 시 실내로 들어서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는 지위나 연령의 고하에 관계없는 예절이다.



폴란드 Korea Desk

KPMG 폴란드는 수도인 바르샤바를 비롯하여 LG전자, LG화학 등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브로츠와프 등 폴란드 내 7개 주요 지역에 Office를 두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orea Desk는 2007년 브로츠와프 Office에 처음 개설됐으며,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등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법인들에게 회계, 세무,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Korea Desk를 폴란드 남서쪽에 위치한 브로츠와프에서 폴란드의 지리적 중심부이자 수도인 바르샤바로 이전했으며, 바르샤바 및 폴란드 북부지역에 위치한 한국 기업들과도 더 많은 업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PC Officer Story Workshop’ 개최 몰입을 이끄는 조직문화 만들어 가요~!

지난 7월 10일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PPC Officer Story Workshop’에 각 본부의 PPC Officer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몰입’을 주제로 워크숍에 참여해, 행복한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

삼성KPMG PPC Officer는 각 본부의 People, Performance, Culture를 책임지고 있다.

S.Manager, Director, Partner로 구성된 PPC Officer는 법인 생활의 선배로서 후배들의 커리어, 인간관계를 살뜰히 챙겨주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 환경의 변화와 저녁이 있는 삶이 중시됨에 따라 ‘몰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PPC Officer들은 ‘FY18 상반기 PPC Officer Story Workshop’을 통해 어떻게 ‘몰입’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지 함께 고민해봤다.

| 마음챙김(Mindfulness)을 통한 ‘나’에 대한 몰입

워크숍의 첫 번째 시간으로 PPC Officer들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참여했다.

먼저, 마음챙김(Mindfulness)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몰입’해보는 연습을 했다. 호흡을 통해 몸속의 긴장을 낮추고 천천히 편안하게 걸어보며 오직 ‘걸음걸이’에만 집중했다. 이를 통해 ‘편안함’을 느끼며,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늘 바쁜 일상을 살며, Multi-tasking에 익숙해져 있다. 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Multi-tasking은 오히려 집중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반면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Mono-



tasking이야말로 몰입을 높이는데 효율적이며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한다. PPC Officer들은 이 세션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바빠서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컸는데, 좋은 시간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행복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잠시라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과 여유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등의 소감으로 자신에 대해 몰입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전했다.

구성원의 몰입을 이끄는 방법

두 번째 세션에서는 Human Solution Group 성과관리연구소 한철환 소장의 강연으로, ‘몰입을 이끄는 조직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강연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 공유해본다.

PPC Officer가 생각하는 ‘조직문화란 무엇인가?’,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에 간단히 답한다면 ‘조직문화란 곧 업무 환경이다’고 할 수 있다. 상하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업무 보고 환경을 수평적 조직문화로 이야기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PPC Officer로서 본부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명확한 끝 그림’을 맞추는 것이다. 명확한 끝 그림인 Vision은 마음을 설레게 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게 만든다. 우리 법인 그리고 본부의 전략과 비전이 무엇인지 명확히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 구성원들도 무엇에 집중해 활동해야 할지, 왜 해야 할지(Purpose)를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한 업무 수행의 ‘Work Way’를 세우는 것이다. 세대 및 가치관의 차이 등을 ‘갈등’이 아니라 ‘시너지’로 모으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의 원칙과 기준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스스로 일을 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Work Way를 통해 갈등과 논란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정립할 수 있으며 일관된 행동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

강연을 통해 PPC Officer들은 “7 Values의 중요성, 조직의 Work Way, 강한 조직, 행복한 조직 문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조직 문화가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을 명쾌하게 들은 것 같다. 왜 KPMG Story가 필요한지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PPC Officer Story Workshop’을 통해, PPC Officer들은 ‘몰입을 통한 조직문화’에 대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 PPC Officer들은 워크숍을 통해 배운 것들을 본부로 돌아가, 본부원들에게 전파할 계획이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과를 이끌 듯,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삼성KPMG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법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NEWS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개최 삼성KPMG 김교태 회장 축사로 참여, ‘한국 기업의 유라시아 시장 진출 적극 도울 것!’



1.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에서 기념 컷팅식을 하고 있다.(맨 우측에서 두번째 김교태 회장) 2. 축사하는 삼성KPMG 김교태 회장 3.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현장

지난 7월 2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이 열렸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시대를 대비해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유라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단체, 개인에게 관련 교육, 자문, 현지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창립총회에서는 양용호 이사장을 비롯해 김정훈 국회의원,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양구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이남호 전북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삼성KPMG 김교태 회장도 참석해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창립을 축하했다. 축사를 통해 김교태 회장은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출범을 축하드린다”라며 “강대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의 틈바구니에 처한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은 이제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모델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유라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성장 파트너로서 함께 개발하고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삼성KPMG는 최근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한국 경제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KPMG Global Network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의 땅,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해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KPMG는 Big4 중 유일하게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Korea Desk를 운영하며 감사, 세무, 컨설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모기업의 우크라이나 트랙터 시장 진출 전략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우크라이나에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2018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 프로그램’ 개최



삼정KPMG는 지난 8월 1~2일, 삼정KPMG 교육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6회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미래의 건전한 경제 주체가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영 및 경제학을 흥미 있는 사례와 함께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꿈과 비전을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매년 진행 중이다. 본 교육을 통해 국내 유수의 대학교수진과 회계 전문가에게 전반적인 경영·경제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나눔을 위한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 경영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정KPMG-SK증권,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MOU



지난 7월 12일 삼정KPMG는 SK증권과 ‘원화 녹색채권(그린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삼정KPMG와 SK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원화 녹색채권의 이해와 저변 확대 및 거래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SK증권은 삼정KPMG의 자문을 받아 이번 달 내에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금융기구인 GCF(녹색기후기금)에 국내 민간금융회사 최초로 AE(이행기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FY17 EF 온라인스쿨 학습 우수자 시상식’ 개최



지난 7월 24일, 바다 휴게 라운지에서 ‘FY17 EF 온라인스쿨 학습 우수자 시상식’이 개최됐다. 학습 우수자는 레슨 50%, 회화수업 50%를 백분율로 환산해 선정됐으며, 최우수 학습자에게는 해외연수 1주의 기회를, 우수 학습자 3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했다. 이번 최우수 학습자로는 ▲조승만 S.Manager(MCS1)가, 우수 학습자는 ▲정성훈 S.Analyst(Deal Advisory6) ▲김태준 S.Manager(DPP) ▲노승원 Associate(B&F2)가 선정됐다. 한편, 삼정KPMG는 임직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KPMG Global 제휴 업체인 EF 온라인스쿨을 1년 차 임직원에게는 1년 과정 100%의 교육비를, 이외 전체 임직원에게는 6개월 과정 50%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굿 라이프』 최인철 교수 초빙 강연 진행



삼정KPMG는 지난 7월 6일 ‘나바시’에 『굿 라이프』의 저자 최인철 교수를 초청하여 행복 특강을 개최했으며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해 행복에 대해 새롭게 정의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바시’는 ‘나를 바꾸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Junior 직급을 위한 사내 강연이다. 오는 9월 4일에는 미래학자 정지훈 교수가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The KPMG Story

The KPMG Story는 KPMG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gy)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상 행동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다.



This is why we're her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This is our Purpose

This is what we believe in

- Lead by example 솔선수범
- Work together 협업
- Respect the individual 존중
-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통찰력
-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 Improve communities 공헌
- Act with integrity 정직성실

These are our Values

This is what we want to be

- The Clear Choice:
- Our people are extraordinary
 - Our clients see a difference in us
 - The public trusts us

This is our Vision

This is how we'll get there

We will:

- Drive a relentless focus on quality and excellent service
- Take a long-term, sustainable view
- Act as a multi-disciplinary firm, collaborating seamlessly
- Invest together in our chosen global growth priorities
- Continuously improve qual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 Maintain a passionate focus on our clients
- Deploy globally our highly talented people
- Bring insights and innovative ideas
- Build public trust

This is our Strategy

This is how we want the world to see us

With passion and purpose, we work shoulder-to-shoulder with you, integrat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deep expertise to deliver real results.

This is our Promise

삼성 KPMG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8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